



지난 26·27일 개최된 '남대전 생명+' 행사에서 반딧불이의 먹이 다슬기와 미꾸라지, 동자개 등 토종 물고기를 방류했다.

# 반딧불이 먹이 방류 주목

## 무주반딧불축제 '남대전 생명+' 행사 '송어잡기' 대신 신설 9월 2·3일 오후 4시부터 추가 진행... 선착순 참여 가능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남대전 생명+'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6일과 27일 개최된 '남대전 생명+' 행사는 반딧불이의 먹이 다슬기와 미꾸라지, 동자개 등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으로, 다년 간 반딧불축제에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굳혀왔던 '남대전 송어잡기' 대신 신설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생명 존중을 모토로 하는 환경축제로서

재미만 추구할 수는 없었다"며 "그래서 올해는 과감히 송어잡기를 폐지하고 송어를 잡던 그 자리에서 다슬기와 물고기를 방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이틀간 '남대전 생명+'를 통해 방류한 다슬기와 물고기는 3만여 마리로 26일 열린 기념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 2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27일에도 일반 관광객 180여 명이 방류에 동참했다.

관광객 이 모 씨는 "해마다 송어잡기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서 반딧불축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들이 그냥 와서 먹고 보고 즐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게 있는 축제라는 게 마음에 쏙 든다"고 전했다. '남대전 생명+' 행사는 9월 2일과 3일에도 오후 4시부터 남대전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참가 신청없이 선착순 참여가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홍삼축제와 함께하는 트로트 대잔치

##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10월 21일 개최... 태진아·장윤정 등 12명 출연

제3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1일 진안군 북부 미아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태진아, 장윤정, 설운도, 김연자 등 총 12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트로트 공연으로 진안군은 28일 유근주 부군수와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태진아 조직위원장 등 트로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가수들과 함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트로트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수 수여와 조직위원장 맡은 가수 태진아의 각오, 트로트페스티벌 관련 브리핑, 미니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자들의 플래시와 질문들이 쏟아져 트로트 페스티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근주 진안 부군수는 "작년에 경찰 추산 3만5,000명의 관객이 행사장에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뤘다"며 "올해도 트로트 페스티벌을 통해 영·호남 통합의 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지는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태진아, 장윤정, 설운도, 김연자, 오승근, 조항조, 진성, 우연이, 유지나, 김성환, 윙크, 유준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총 출동으로 진안홍삼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가을배추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 무주군, 9월 말까지 접수

무주군이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읍·면 담당공무원들과 무주 친환경 유통사업단, 구관동농협,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

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지점 농협에서 9월 말(8.28.~9.27.)까지 한 달간 신청(사업신청서, 계약서 작성)을 받는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경작 농지규모 1,000㎡~10,000㎡)으로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다슬기 양식장 (유)자연애 장수 연평천서 다슬기 방류행사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서 운영 중인 다슬기 양식장 (유)자연애가 지난 27일 천천면 연평리 평지마을 앞 연평천 일대에서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슬기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유정 대표와 백두한 수중생태계관리단장 등은 장수군의 토종다슬기인 민다슬기(일명 뺨질이 다슬기) 복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슬기 치패 230만수를 방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제2차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한영희 부군수를 주제로 한 제2차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전 실·과장 및 읍·면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보고회에서는 다가오는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대비, 각 프로그램별 추진상황 보고와 작년 축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심도 있게 토론했는 등 축제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9월 1~2일 백두대간 생태학교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1박 2일 동안 무주군 청수면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주군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실천봉~향적봉~백암봉 구간 의 아고산대를 포함한 백두대간 야생화 탐사 등 자연생태계를 직접 오감으로 느끼며, 체험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 삶과 문화의 터전을 직접 돌아보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백두대간 생태학교에서는 '덕유 ㉨(연) 人(인) 행복 네트워크 형성' 일환으로 아고산대 핵심서식지 중점관리 지역 현장 체험 및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이야기와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424주기 의암주논개 순국 추모제 거행

## 논개 시비 제막식도 개최

장수삼절 중의 한분인 의암 주논개에 대한 추모제가 순국일인 28일(음력 7월 7일)에 장계면 논개 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봉행된 추모제에서는 초현관 한영희 장수군 부군수, 이현관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 종현관 김순홍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이 총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봉행, 헌공다례가 엄숙하게 진행됐다. 더불어,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립된 논개 시비 제막식도 개최됐다. 의암 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탄생했으며, 1593년 6월 남평 최경회 현감을 따라 2차 진주성싸움에 참전했다가 종과부적으로 상이 무너지고 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버린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가장, 왜군 승전연에 참석 예장 모곡촌유족을 진주 남강변 현재의 의암으로 불리는 바위로 유인하여 순국했다. 의암주논개는 순의리 백씨, 충북 정경순과 더불어 장수삼절로 받들어져 추앙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 등산로 13코스 정비 박차

진안군은 단풍철 이전 등산로 정비 완료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운장산을 비롯한 구룡산, 천반산, 지장산 등 7개 산(13코스), 43km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정비하고 있다. 위험구간에는 로프 난간과 데크 계단 등을 확충하고, 미아산 조망이 가능한 지점에 포토존 설치, 각종 안내판, 이정표, 도내 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 등으로 현재 등산로 정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구룡산 등산로는 위험구간 계단을 설치해 산행안전 확보와 등산객 상호 교차보행이 되도록 어려움을 해소했다. 구룡산은 명품의 구름다리를 비롯한 부대시설 정비로 가을철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환경 친화적 공병 적용,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